

초밥 1인분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초밥은 일본의 에도(江戸)시대에 탄생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요리다. 초밥은 밥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초밥 가격은 가게마다 다르고, 한 가게 안에서도 종류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전 초밥집에는 다양한 색깔의 접시 위에 놓인 초밥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접시의 색깔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초밥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모든 초밥집에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초밥 정식 1인분에 사용되는 밥의 양과 개수다. 초밥집에 가서 정식을 주문하면 1인분에 8~10개의 초밥이 나오는데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일본 초밥 장인들은 초밥 1인분에 10개로 정한 덕분에 일본의 초밥집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동경에는 3000개가 넘는 초밥 가게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쌀과 생선이 배급제로 전환되면서 초밥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일본은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부족한 곡식을 식민지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는데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카타야마(片山) 총리가 식량난 타개책의 하나로 '음식 영업 긴급조치령(飲食營業緊急措置令, 1947년)'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배급 허가를 취급하는 식당, 여관, 찻집 등만 영업하도록 하고 이외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부분 음식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초밥집 역시 모두 사라질 운명 앞에 놓였다. 이때 초밥 조합의 간부인 긴자 초밥집 야기(八木) 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초밥 장인들이 초밥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고객이 배급받아가져온 밥을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어 파는 위탁 가공업으로의 전환이었다. 고객이 밥을 가져오면 간을 하고 날생선을 올려주

는 작업만 하면 이는 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음식점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발상이다. 야기 사장 등이 야스이(安井) 당시 동경도 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초밥에 사용되는 생선은 배급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다시 내놓은 결과는 배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었다. 조개, 새우, 달걀, 표고버섯, 민물 생선 등은 배급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쌀 배급량을 고려해 밥을 적게 해서 1인분을 10개로 정하고 재료비와 가공비를 포함해 40엔의 합리적인 가격을 받겠다고 동경도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음식 영업 긴급조치령'에도 초밥 가공업으로 전환한 초밥집(握り寿司の加工業に切り替えた寿司屋)은 영업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다. 이후 초밥의 양과 개수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초밥에 날생선 이외의 재료가 사용된 것도, 정식 1인분이 10개로 정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두 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금투세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기지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시행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뻘한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인 입장에 간혀서 1000만 투자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만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금투세 시행'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나 당론을 정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내 증시 상황에 고액 투자자들이 증시에 관심

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내 3대 증권사 개인투자자 계좌 중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계좌의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5691억원에서 36조4365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줄었다. 시장에선 고수익 계좌 잔액이 감소한 건 금투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건 증시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금투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야기 할 것은 다 했다. 이제 정치권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wkh@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이니 조금해하지 마라. 48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 60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다시 시작해보라. 72년생 좋은 운은 밝음에서 출발하니 불평불만을 멀리하는 다짐을. 84년생 급할수록 일의 마무리에 신경.



37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49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동료와의 대화에 주의. 61년생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73년생 문제 해결책은 가까이에서 있으니 소통을. 85년생 의리를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3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이익. 50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를 보낸다. 62년생 일을 추진할 때 유연성이 필요하다. 74년생 계획 없던 지출로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김. 86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계획을 시작해야.



39년생 정보를 구청에 가서 얻는다. 51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63년생 승진시험이라면 흑색 옷을 입어보면 행운이. 75년생 평소 쌓은 노력으로 직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87년생 고집부리지 말고 다수 의견을 존중.



40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서글프다. 52년생 모난 돌이 정맞으니 자중. 64년생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풀린다. 76년생 마음을 새로 하니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든다. 88년생 만사가 생각대로 이뤄진다.



4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을 해 보자. 5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65년생 만남에 행운을 가져온다. 77년생 무릇 벼사에 감사하라는 글귀를 기억해보자. 89년생 투자에 너무 신경 쓰다가 건강을 해질라.



4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 54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6년생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주의. 78년생 삶이란 어디에서든 책임지는 과정이 인생의 기본설정인 것이다. 90년생 운이 들어오니 계약이 수월하다.



43년생 만경창파(萬頃蒼波). 55년생 반려이기는 장난감이 아니라 손자에게 때리지 않는 동물 키우는 교육용. 67년생 두드러진 열렬 운이다. 79년생 인생은 고해의 바다이니 현실에서 자기 분야의 실력을. 91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해야.



44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명달아 내 마음도 상쾌. 56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말도록. 68년생 손에 땀을 흘려야 성공한다. 80년생 감사를 유념하는 마음을 설정해보라. 92년생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상의해서 투자도 좋다.



45년생 실패한 일을 거울삼아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7년생 만남보다는 주변 정리에 힘써야 할 때. 69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81년생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봉사하는 마음도 베풀고 사는 것임. 93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46년생 모임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58년생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쳐나는 하루. 70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이다. 82년생 뜻을 이루려면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그마저도 감사해보라. 94년생 남의 일에 자꾸 참견하지 말도록.



47년생 유혹을 이기지 않고는 진전도 없다. 59년생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금은보화가 들어온다. 71년생 번개가 치니 곧 천둥소리도 들릴 것. 83년생 감사를 유념하면 나를 둘러싼 에너지가 밝아짐. 95년생 수입지출을 알기 위해 가계부를 적자.



김상회의四季 우주와 나

하늘이 청명해지니 마음은 저 창공을 날아 시원해짐을 느낀다. 그런데 푸른 하늘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한 낮보다는 별들이 깨 박히듯 좋 좋히 빛나는 한밤중에야 저 너머 미지의 세계인 우주가 더 마음에 와서 닿는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밤하늘에 수놓은 별을 보며 개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주는 자기만의 별을 품곤 했던 것이 아닐까? 세계 종말론을 고했던 노스트라다무스나 동서양의 정신적 성인들은 우주와 소통하고 직관하던 별자리 천문을 세상의 신비를 품고 있는 원리로 이해했기에 이심필수 별자리를 그리도 소중히 받아들였다. 태고의 탄생과 신비를 간직한 보고이자 열쇠로 인식했던 것이리라. 무릇 대자유를 만끽하고픈 존재들은 밤하늘과 가까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공기 오염으로 대기가 탁해져 옛날만큼 육안으로 바라보는 심원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덜 오염된 깊은 산중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아직도 동심 때 바라보던 그 하늘만큼은 아니더라도 경건한 동경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와 가까워진 시대지만 세상의 진리 우주가 생성되고 변화하며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우리 한민족은 천부경에서 무극이 태극이라 하여 빈 가운데 마음이 생기고 물질이 태동하며 차면 넘치고 다시 비계 되는 그 이치를 간파하고 있다. 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공자는 오늘 도를 깨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다. 도를 깨친다는 것은 죽어서도 사는 이치이기 때문이리라. 필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사주명리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태양계 안에서 행성과 주고받는 에너지로 인해 생긴 사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역시 우주의 축소판이기에 이를 기호화해 적용하고 삶의 흐름에 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 코드와 할인도서

6		4	7	2	
	2	5		3	1
9					4 1
	7			3	
7	1				5
		7	4		5 1
		6		3	
5		8	1		8

8		5 4		2 9 3	
			3 2	4	
				9	5 8
7		4		2	
					1
			9		3
	7 9		8		
		2	6 9		
8 5 6		3 4		7	

9	8	7	1	2	8	6	9	2
8	2	6	8	2	9	9	7	1
2	1	9	9	7	6	2	8	8
9	9	2	6	8	8	7	1	2
6	8	8	7	1	2	9	9	9
1	7	2	9	9	2	8	8	6
2	6	1	8	8	9	9	2	7
2	9	8	2	6	1	8	2	9
8	2	9	2	7	1	6	8	

6	2	1	7	8	2	9	9	8
4	9	8	6	9	2	2	1	8
2	8	9	9	8	1	6	2	7
8	7	8	9	2	6	9	2	1
1	2	6	8	9	7	8	9	2
9	9	2	2	1	8	7	8	6
2	8	9	1	6	9	8	7	2
9	1	7	8	2	8	2	6	9
8	6	2	2	7	9	1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3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